

찾아가는 미술관 '아주 사적인 표면들' 展

전북도립미술관, 28일까지 전주 미술관 솔에서 소장품 기획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는 28일까지 전주 미술관 솔에서 소장품 기획전 2022 찾아가는 미술관 '아주 사적인 표면들'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품 기획전은 올해 두 번째로, 고전적인 매체 분류법으로 한국화 및 회화에 속하는 동시대미술 작품 14점을 선별해 작품의 질료와 작가의 필치로부터 비롯된 표면의 물질성을 살펴보고, 전북 출신 작가들의 회화적 표현 경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아주 사적인 표면들' 展에서는 그림의 질료와 붓질에서 비롯된 작품의 표면 효과를 주제 삼아 작가의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그로부터 비롯된 회화성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정서와 미감의 근원을 추구해 민화적 기법과 오방색을 차용한 박종수의 유채 작품 '민화적인 풍경', 자신을 둘러싼 상황으로부터 느낀 순간적인 인상을 그림 그리기를 통해 기록하고자 하는 강성은의 '비닐과도', 한국화의 전통 소재 산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임희성의 '변종산수-의

자', 잘라낸 책의 단면을 재료 삼아 층층이 쌓아 올린 이정웅의 풍경화 'Mountain' 등 14점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전북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찾아가는 미술관'은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 도민의 공공자신인 미술관 소장품의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미술 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 장수군, 임실군, 진안군 등 8개 시군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상설 전시실 '청암서예관'에서는 조선의 3대 명필 중 우리 지역 출신인 장암 이상만 선생의 묵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같이 전시돼 현대와 고전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찾아가는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이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3월 9일 수요일은 휴관) 관람 가능하다.

전시관 관련 문의는 미술관 솔(063-285-0567)로, 전시 내용 관련 문의는 전북도립미술관(063-290-6888)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2022 찾아가는 미술관 : 전주 2022.03.03-2022.03.28

완주술테마박물관, 국가디지털장서 2년 연속 선정

박물관 소장 희귀 도서자료 가치 인정받아

완주군 대한민국의술테마박물관이 국가디지털장서 구축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4일 완주군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2022년 문화예술자료 디지털화 지원'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의술테마박물관의 소장 도서들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원문 영인 등을 통해 디지털 자료 집적 및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과정을 거친다.

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에서 작성한 '조선주·청주·적포도주 실험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당시 주류산업 관련 어용단체였던 조선주조합회 발간 도서 등 89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도서·자료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스캔하고 디지털 보정 및 문자 인식(OCR)작업을 거쳐게 된다. 이후 국가지식자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 디지털 장서 '코리안 메모리·지역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 영인된 술 박물관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기억의 도서관·코리안 메모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앞서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만가필비(萬家必備)-조선요리제법' 등 87권은 온라인 공개를 앞두고 있다.

완주군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소장하고 있는 유일본, 희귀본 도서자료의 국가무형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콘텐츠 구축과 온라인을 통한 공유다"며 "대한민국의술테마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 예술 자료의 국가 디지털 장서 구축을 통해 완주군이 보유한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조선주조합회 주(제6권 제2호, 소화9년)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 개최

사회적기업 들레, 31일 연지아트홀서 진행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들레의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이 오는 31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진행된다.

본 공연은 2019~2021년 총 13차례의 공연을 통해 전석 매진 등을 기록한 정읍만의 독보적인 공연으로 2019년 3월 28일 '시작(詩作)'이란 주제로 시작했다.

또한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해가 진행을 맡아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번 2022년에는 분기별 1회로, 해당 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총 4회로 (3월 31일, 6월 30일, 9월 29일, 12월 29일) 진행된다.

2022년에는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을 콘셉트로 진행되며 오는 31일의 '농담'은 '춘·하·추·동(春夏秋冬)' 사계절 중 봄과 관련된 특별 게스트가 출연 예정이다.

'농담'을 봄의 기운으로 채워 줄 게스트는 콘서트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에 시민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티켓 오픈은 사회적기업 들레의 자체시스템을 통해 3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회적기업 들레 홈페이지(dulle.or.kr)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번 공연의 주관·주최 사회적기업 들레의 안수용 이사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정읍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인문학 콘서트 '농담'을 다시금 진행하여 시민분들이 코로나가 아닌 문화라는 키워드로 삶이 한층 즐거워지길 바라며 마련한 자리"라며 "올해 사회적기업 들레에서 진행하는 문화도시 정읍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기획전시 '김경신 작가 초대전'

김경신(사진) 작가의 기획전시가 '빛과 색깔 그리고 조형'이라는 주제로 5~19일 2주 간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전은 한지와 금속의 전기분해기법을 활용한 이색적인 전시로, 갤러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 작가는 2021년 12월 유럽 순회 전시회 개최 등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오고 있다. 3월 한국전통문화전당 기획전에서는 '빛과 색깔 그리고 조형'이라는 주제로 세상의 모든 빛을 한지에 담는다.

이번 작품의 테마는 빛과 색채와 조형이다. 여기에 재료로 금, 은, 보석, 한지를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한지와 금속의 전기분해기법은 김 작가 자신이 직접 특허 취득한 보유자로,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한편 김경신 작가는 그동안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40년 넘게 해온 작업들을 전시회에서



총체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영상위원회 단편영화 제작지원 작품 공모

(사)전주영상위원회는 도내 영화제작 인력 기반확충 및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을 위한 '2022 전주영상위원회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편 내외의 단편영화를 선정, 총 지원금 규모는 3800만 원이다. 지원 조건은 만 15세 이상의 영화 연출자로, 지역 거주자 및 지역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지역 내 영화·영상 기관 또는 단체 활동 영화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작품당 지원금을 최대 700만 원으

로 확장해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 제작을 도모하고자 했다.

접수는 오는 17~24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연출자는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jic.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단편 시나리오를 비롯한 신청서, 제작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주영상위 이메일(jjicp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